

화 해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의 사

▶ 대상자

- 나이/성별 : 59/남자
- 구역 & 구토, 복부 통증 시작 일주일 전부터

▶ 현 병력

충남대에서

- 2008년 1월 간 전이 있는 진행성 위암 진단
- 2008년 1월~6월 5차례 TCF 항암치료, 9월~11월 3차례 FOLFOX 항암치료
- 2009년 1월~3월 3차례 FOLFIRI 항암치료
- 이후 진행하였고 2009년 4월 유문부 폐쇄로 스텐트 삽입함.
- 1개월 전부터 시작된 구역 & 구토, 복부 통증으로 호스피스 입원함.

▶ 과거력

- 당뇨/고혈압/결핵/간염 : (-/-/-)

▶ X-ray



▶ 이학적소견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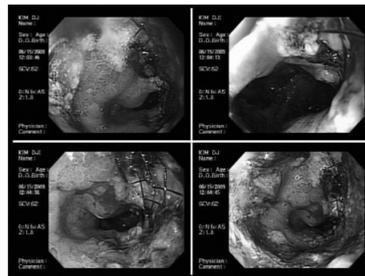
▶ 진단

진행성 위암 : 간 전이, 위 유문부 협착 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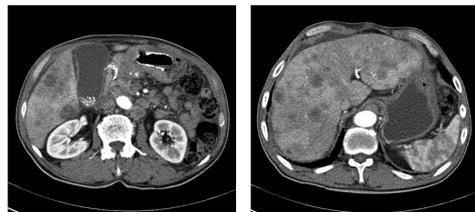
▶ 계획

1. 위내시경 추적 검사
2. 복부컴퓨터 촬영
3. 금식 & 경정맥 영양
4. 통증 조절
5. 호스피스 팀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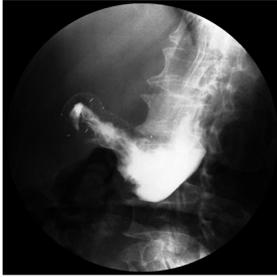
▶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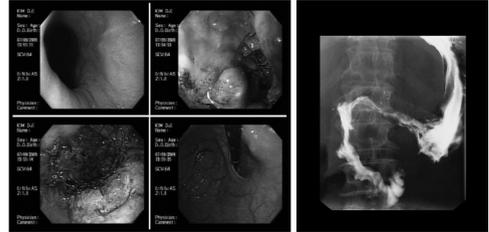
- 6.15일 위내시경 : cancer invasion으로 인해 stent의 일부가 덮여 있으나 내강의 passage는 유지됨.



- 6.16일 복부 컴퓨터 촬영



- 6.17일 gastrograffin을 먹은 후 초기에 소량은 duodenum 으로 rapid passage 되었으나, 양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stent의 distal portion에서 delayed passage됨. 30분 후에 시행한 delayed film에서 대부분의 contrast는 leal loop까지 opacification 됨. definite obstruction은 아니나 stent를 passage시 delayd passage를 보임.



- 7.9일까지 diet tolerable하다가 old blood vomiting
- 위 내시경 추적검사 & UGI series

L-tube insertion 후 abd. Discomfort 호전
외과 협진하여 feeding jejunostomy 고려하였으나 MRCNS infection 발생하였고 진행하지않음.
Terminal care로 전환하였으며 L-tube 통해 GI bleeding 지속되었으며 입원 67일째 사망함.

간 호 사

- ▶ 대상자 : 김 ○○(M/59)
 - 해 점차적으로 식사섭취 불가능하게 됨
- ▶ 진단명 : 위암(2008년 1월 진단)
 - 피부 : 발한으로 축축한 상태
 - 배변 : 1회/3~4일(변비)
 - 배뇨 : 자연배뇨
 - 일상생활수행능력(ECOG) : 3점
 - 의사소통 : 가능
- ▶ 재원기간 : 2009. 6. 12 ~ 2009. 8. 19
- ▶ 호스피스 등록 : 2009. 6. 12
- ▶ 개인력
 - 성격 : 내성적인 성격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음
대화 중 가끔씩 유머를 사용
 - 종교 : 천주교 : 대세(분도)
 - 병식 : 있음
- ▶ 환자사정(1)
 - 의식 : 명료한 상태로 의사표현이 가능
 - 식이 : 소량의 죽을 섭취했으나 오심, 구토로 인
- ▶ 환자사정(2)
 - 통증사정
 - 부위 : 복부 통증 호소
 - 양상 : 쑤시고 짓누르는듯하다고 표현
 - 통증조절
 - N-MPA 300 mg
 - 돌발성 통증 시 : N-MPA 30mg

▶ 간호진단

- #1 통증과 관련된 안위 변화
- #2 오심 구토와 관련된 체액 부족
- #3 출혈(토혈)과 관련된 불안
- #4 가족 간 의사소통 결여로 인한 비효율적 대응

#1 통증과 관련된 안위 변화

- 사정
 - AGCA 환자로 간헐적으로 VAS6~8점 정도의 복부 통증 호소함.
 - 쑤시고 짓누르는듯하다 표현함.
- 중재
 - 환자의 통증을 VAS 이용하여 사정하고 말로 표현하도록 함.
 - 통증 유발 시 환자의 자세를 편안하게 해 줌
 - 통증 완화를 위해 근육 마사지나 호흡법의 이완요법을 시행함.
 - 처방된 진통제 투여하고 약물의 효능 사정함. PRN) N-MPA 30mg IV
- 평가
 - 지속적 마약성 진통제 투여로 통증호소는 평균 VAS 3점 유지된다.
 - 1일 2~3회의 돌발성 통증 발생 시 마약성 진통제 투여로 완화 된다.

#2 오심 구토와 관련된 체액 부족

- 사정
 - 09년 04월 pyloric obstruction으로 stent insert함.
 - 지속적으로 오심 & 구토 호소하여 금식하며 L-tube drain 시행함.
 - 허약감과 전해질 불균형.
- 중재
 - 피부의 탄력성, 점막피부의 습한 정도, 허약감 등의 탈수증상을 사정함.
 - 섭취량과 배설량을 사정함.

-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처방된 수액을 정맥으로 투여함.
- 혈액학적 전해질 검사 결과 확인함.

• 평가

- 섭취량과 배설량의 균형을 유지하며 탈수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 정맥 내 수액 투여로 전해질이 정상범위를 유지한다.

#3 출혈(토혈)과 관련된 불안

- 사정
 - 간헐적으로 토혈을 함. (약 100cc 정도)
 - 평상시 혈압보다 떨어지며 맥박수 증가함.
 - 안절부절 못하며 '죽고싶다' 말함.
- 중재
 - 출혈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불안감 감소시켜 줌.
 - 환자와 의미 있는 보호자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
 - 환자와의 잦은 접촉을 통해 불안 정도를 사정함.
 - 성직자를 통한 영적지지를 해 주며 심신을 편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려줌.
 - 절대 안정을 유지하고 환자의 불안이 증가 시에는 처방된 진정제를 투여함. PRN) MIDZ5A 0.5@ IV

• 평가

- 불안의 원인과 불안 감소에 대해 환자가 말로 표현한다.

#4 가족 간 의사소통 결여로 인한 비효율적 대응

- 사정
 - 환자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의사표현의 부재.
 - 현재 2년 전 이혼한 부인이 간병을 하고 있음.
 - 환자의 전 부인 사이에서의 아들 1명을 20년 동안 키웠다고 하며 현재 아들은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 주 간호자인 부인은 환자와 20년을 함께 살면서 환자에게 갖은 구박과 폭행을 당했다며 지금도 자신을 이용만 한다고 생각함.
- 간호하는 동안에도 환자 곁에 있지 않고 병실 밖 휴게실에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음.
- 중재
 - 가족끼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 환자와 가족들 간의 즐거웠던 순간을 회상하

게 하고, 경험을 보호자와 공유하도록 해 줌.

- 영적 지지를 통해 부인의 감정 표현을 하도록 해 줌.
- 원예요법 중의 하나인 희망나무 열매 요법을 통해 환자와 부인의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
- 부부 공동의 환갑잔치를 열어 줌.
- 평가
 - 환자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다.
 - 마지막을 가족들과 함께 함으로써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한다.

사회사업팀

▶ 대상자

- 성명 : 김 ○○
- 성별/연령 : M/61
- 주거형태 : 무상가옥(하우스 콘테이너)
- 학력 : 무학
- 종교 : 가톨릭
- 결혼상태 : 기혼
- 직업 : 無
- 의료보험 : 건강보험(환자 아들)
- 사례개시일 : 2009. 6. 25(전인치료센터 입원일 2007. 6. 12)/2009. 8. 19 입중

▶ Risk Factor screening

1. 정신과적 병력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2. 진단초기 및 질병과정에서 적응의 어려움 (×)
3.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
4. 매우 어린 자녀 (×)
5. 상실의 경험이 많은 경우 (×)
6. 경제적 문제 (×)
7. 인지장애 (×)
8. 다른 질병의 동반, 합병증 (×)

9. 노인, 소아, AIDS, 시설입소자 및 행려자 (×)
10. 가족문제 (○)
11. 가정폭력, 아동학대 (×)

▶ Family Background

환자 이혼 후 동거(환자 아들 양육) 본원 입원 전 재연락

〈며느리〉

- 병식 : 있음 • 학력 : 고졸
- 직업 : 회사원 • 성격 : 소극적

〈아들〉

- 병식 : 있음 • 학력 : 고졸
- 거주 : 천안 • 직업 : 회사원(연봉 3000만원)
- 기타 : declsion maker

〈환자 전부인〉

- 병식 : 있음 • 학력 : 초졸
- 거주 : 대전 • 의료보장 : 급여2종
- 기타 : 주간병인, sulclde 시도(여러 차례)
학대 · 상실 경험 多

심리사회적 평가

〈환자 전부인〉

- 죄책감
“예전에 아기를 유산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줬어……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난 그게 고마워서 함께 살았는데……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거 떨쳐버릴려고 내가 간병 하러 온거야.”
- Abuse-Trauma(부,환자)
- 문맹에 대한 수치심
- 간병 burn-out

〈환자 아들〉

- 안정된 가정의 테두리가 부재했던 것에 대한 환자에게 대한 서운함(父 이혼과 父의 여러 차례의 동거)
- 환자 전부인에 대한 고마움

〈환자 며느리〉

- 환자에 대한 미움
“결혼 후 아이가 (자연유산되자 남편에게 새 장가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말 너무 하셨어요.”

경제적 평가

- 주수입원 : 無 (떠돌이 생활)
- 주거상황 : 무상가옥 (콘테이너 박스)
- 사회보험 : 無
- 사보험 : 無
- 부채 : 無
- 기타재산 : 無

▶ Care Plan & Intervention

심리사회적 개입

〈환자 전부인의 죄책감〉

- 환자 간병에 대한 아들의 approval 유도
- Abuse-Trauma (부,환자)
-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 상담을 통한 ventilation

문맹에 대한 수치심

- 지역사회복지관 한글교실 연계
- 무료간병 연계(교보 무료간병 배치)

〈환자 며느리〉

- 불임에 대한 불안감 support

〈환자, 전부인, 아들〉

- Needs : 가족간의 따뜻한 情을 나누고 싶은 마음
환갑잔치 진행(2009. 7. 16)

경제적 개입 및 개입계획

- 환자 전부인 사별 이후 생계 의료 급여 2종-1종 전환 안내

기타 개입

- 사별가족 모임 안내



원목자

영적 돌봄

7월 어느 날 환자의 방문 요청을 받고 그를 방문을 하였는데 김 성모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환자의 이야기로는 본인이 대세(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나는 환자에게 재차 질문하기를 누구로부터 대세를 받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고 하니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알려주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다 고 한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리만을 알려주고 7월9일(목)에 교직원 미사를 끝내고 저녁 6시 30분에 그의 병실 입구에 서서 보니, 부인이 가족 휴게실에 앉아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당신 남편에게 내가 대세를 주려고 하는데 환자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녀에게 말하니 고개를 가로 저으며 싫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에 자기를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이 원목수녀와 함께 그에게 '분도'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주었고 이틀 후면 성 분도축일이라고 알려주며 축하를 해주었다.

17일(금)에 회갑을 준비하기 위해 팀원들 모두가 회갑을 끝내고 회갑 일을 맞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그의 아들이 준비한 김 성모님의 어린 시절의 영상은 모두가 눈시울을 적실만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으며 모든 이를 숙연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음을 동영상에 담아 보여준 아들의 마음이 감동적이면서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여운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다음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열이 40℃가 넘게 나고 있어 환자가 선풍기를 침대위에 놓고 앉아 있

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이 눈을 감고 선풍기 앞에 앉아있었다. 월요일에는 치료사로부터 부인이 미술치료를 받았는데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컸던 것 같았다. 그러나 환자는 매일 같이 눈을 감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도 않으며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1달 동안 보여주었다. 교리지식이 없는 환자는 단순히 “예수님”이름을 부르며 목주를 손에 쥐고 생활하였는데 누워 잠든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힘든 투병 중에서도 기도 받는 것을 좋아하였다. 반면 부인은 자기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다른 환자 가족들과 사이 좋게 지내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함께 하는 등 주로 먹고 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8월 19일(금) 아침 7시 50분에 임종하는 순간에 그의 부인은 옆에 서서 별안간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 했어” 한숨 반 헛소리 반을 하면서 주먹을 왼채로 연신 자기가슴을 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느님이 당신 남편을 통해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천사의 얼굴로 보이지 않느냐?” 하였더니 그의 부인은 하던 짓을 멈추고 “맞아 맞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부인과 임종기도를 함께 바치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위로해 주며 “그 동안 갚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좋은 선물로 주시고 가시니 기쁘시지요” 하였다. 그동안 남편과 부인을 사슬처럼 엮어맨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죽음을 통하여 말없이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돌아가신 후 여기저기로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는 이들은 정신없이 연락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매달리는 아들 내외를 보며 간절히 졸라대는 이들에게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수소문하여 돌아가신 분의 뜻에 따라 천주교 공원묘지로 갈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신자가 아니기에 단순히 알아보는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간절히 원하는 그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산내공원 묘지관리소에서는 가족 중 천주교 신자가 있지 않으면 묻힐 수가 없다고 하였다. 가족들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 나중에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하여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는 조건을 수락하여 휴가 중인 교구청 묘지 담당자와 연락을 하고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받고 산내 천주교 묘지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늦게 하느님을 알았지만 다 나은 다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세례 받을 때 말씀하셨던 그분의 바람이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죽어서라도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 받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져 다행이었다.

처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빨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간절히 원하셨던 고인의 소망을 하느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들어 주시는 것을 보며 인간의 법을 뛰어 넘는 하느님의 사랑의 법을 새삼 느꼈다.

모든 장례절차를 천주교 식으로 하고 싶었던 유족들의 뜻에 따라 본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린 후 인근 본당에 연도 요청을 하며 자원봉사자와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도 기도를 청하였다. 가족이 많지 않고 신자가 없었기에 틈틈이 빈소를 들러 유가족들과 함께 하며 기도를 바쳤다. 돌아가신 분의 상황을 아는 본원 장례식장 선생님들이 입관 때 유가족들과 함께 하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본당에 소속된 분이 아니었기에 원목실장 신부님의 주례로 집전된 장례미사 때 대사동본당 연려회원들을 비롯하여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연락망을 취

하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내 가족처럼 달려와서 지상에서의 고인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하며 기도하였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며 고인이 참으로 행복하신 분임을 느끼며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그분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느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름으로 어느 장례미사보다 더 많이 모이며 고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하느님께서 몇 안 되는 유가족의 쓸쓸함을 많은 이들로 채워주시어 마지막 길을 슬프지만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 주셨다. 십자가상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분도처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제단 앞에 누워 계시는 고인에게 들리는 듯하다. 이승에서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마지막 순간에 많은 이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 떠나는 그분은 분명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영적 돌봄 평가

- 자신의 질병을 통해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신앙 안에서 첫 발을 내딛는 값진 병상의 삶이 되었다.
- 부자간의 관계가 회갑잔치를 계기로 자기들이 만든 매듭이 풀어져 서로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 모든 어려움을 말없이 받고 있는 모습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느꼈다.

- 부인과 고인과의 관계 안에서 오랫동안 엮매었던 서로간의 사슬들이 풀어져 죽음을 통하여 서로 화해되었다.
-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부인과 자식에게 하느님께로 인도해준 고인의 삶은 지상에서 가족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 산 이들과 죽은 이가 지상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하느님 안에서 기쁨의 한마당이 되었다.

나의 느낌 : 질병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일치, 용서와 화해를 이끄는 큰 변화였다고 나는 확신한다.

자원봉사자

본원 호스피스 팀과 두 달간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고 임종 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부인에게 용서를 청하고 떠난 김 성모님과 봉사자들의 만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병실을 방문하며 봉사자의 방문에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봉사자 소개와 역할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잘 받아 들이셨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 모습이기에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다른 병원에서 1년 정도 살 거라고 했는데 이미 6개월을 더 살았으니 이제 아무 여한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통증 없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느냐고 물으니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아야 죽을지 그것이 무섭다고 하셔서 어깨와 발마사지를 계속하며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말씀 드리니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경당으로 모시고가 감실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세를 권유했습니다. 평생 제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 하느님을 찾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그래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어떤 죄도 용서 하시며 또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는 분이시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참을 생각 하더니 주선을 해주면 대세를 받겠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할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며 특히 부인에게 미안했던 일이 있으면 용서를 청하고 옆에서 간호해 주어 고맙다는 말을 꼭 하시라고 했더니 삶에 대한 회한이 많으신지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후 수녀님과 연결하여 성모란 세례명으로 대세를 받으셨고 찾아갈 때마다 함께 성호를 그으며 편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머리를 깎아 드리고 목욕도 시켜 드리며 신체 간호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갔습니다. 자주 혼자 계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여서 즐거웠던 삶의 순간을 생각하시면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통증도 줄여 준다고 말씀드리니 어린 시절을 떠올리셨습니다. 성탄 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던 때의 기쁨, 또 그 때 배운 찬송가는 아직도 기억한다면 그 시절이 그리운 듯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중조할머니가 가톨릭 신자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중조할머니 기도 덕에 세례 받으신 것이네요' 하니가 웃으시며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에게 용서는 청했냐고 여쭙니 다 지나간 일인데도 아직도 풀지 못한다며 쓸쓸해 하셨습니다.

며칠 후 부인의 회갑연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화장을 곱게 하고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부인은 기쁨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병동의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 병원의 직원들이 모두 축하해주고 축하와 음식과 선물이 준비 되었습니다. 어쩌면 부인에게 오늘은 생의 최고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갑연이 끝나고 떡을 환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는 모습에서 행복해 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부인은 늘 곱게 화장을 하셨습니다. 복도의 큰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부인을 보고 ‘참 고우세요. 늘 화장 하고 계시는 모습이 좋아요.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화장할 때면 나 자신이 행복해 지잖아요?’ 말씀드리니 공감하시며 날 옆에 앉히시고 당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살 때 엄마에게 버림받고 남의 집을 전전하며 일가친척도 모른 채 살아온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야기를 할 땐 이미 눈물을 흘리시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전처소생의 아들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갈라놓아 키워준 정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남편의 끝없는 외도와 폭행은 이혼을 결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유산을 여러 번 한 경험이 있어 생명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는데 이혼한 남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속으로 병간호할 생각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혼자 두고 수시로 외출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불쌍한 마음보다는 유산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택한 간병이기에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척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들 며느리는 직장을 핑계로 자주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남편을 자신에게 떠맡긴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다면 후회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니 너무 불쌍했습니다. 눈물을 흘치시며 이곳 성모병원에 와서 참 행복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미역국 한번 못 얻어 먹은 자신에게 회갑연을 열어 주고, 매일 방문하여 관심과 위로를 해주고, 다양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불러 주어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피한방을 쉬

이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구나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시며 또 우셨습니다. 예쁜 화장 지워 지시니 그만 우시라고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회갑연 때 고운 화장과 한복을 입고 환자들에게 떡을 나누며, 부인은 당신도 남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도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평화로운 죽음을 보고 부인의 용서가 이루어졌고 봉사자들은 성모님과 가족의 이별 식인 장례미사에 동참 했습니다. 정작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며 참석하지 않아서 총 팀장이 부인을 모셔와 장례미사 전반을 함께 하며 마지막 이별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가 새어머니께 고마움을 표현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고맙습니다’ 말하며 눈가가 축축이 젖었습니다. 그 순간 부인도 그동안의 섭섭함을 위로받은 듯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례식 이후 전화를 드려 건강은 어떠신지 여쭙었더니 지병인 당뇨와 허리가 아파 고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사별가족모임이 있음을 알려 드리고 오시라고 권하니 모두 보고 싶지만 지금은 마음이 복잡해 어렵고 좀 편안해지면 들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관심과 위로를 드리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게 권유하여 교회공동체의 가족으로 하느님 사랑에 의지하여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을 잊고 새 희망의 삶을 사시도록 지속적인 사별가족 돌봄을 이어갈 것입니다.

